

# 진도 낚시관광 산업 본격 육성

郡, 5년간 50억 투입...해양 낚시공원·바다목장 등 추진

천혜의 청정바다와 풍부한 어족자원을 갖춘 진도군이 낚시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진도군은 지난 22일 진도 JC회관에서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낚시관광산업의 미래상과 실천과제'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 낚시를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생활체육 진도군 낚시연합회와 진도 JC(청년회의소)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진도 낚시산업 활성화(김귀성 진도군 해양수산과장) ▲진도 낚시관광 발전(권법노 한국낚시방송 FTV 본부장) ▲낚시 면허제도(최상학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 사무처장) ▲낚시터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대책(박영구 목포해경

해상안전계장) 등이 발표되고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진도군은 매년 전국단위 바다·민물낚시 대회 개최를 통해 낚시산업과 지역관광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진도는 23여개의 다도해 섬이 자리하는데 660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어족지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낚시 인구 500만명 중 10만명 가량이 오직 낚시만을 즐기기 위해 매년 진도군을 방문, 계절별로 감성돔, 광어, 우럭 등 다양한 어종을 잡고 있다.

그러나 천혜의 낚시지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가 저조하고 낚시와 연계된 어촌관광 소득이 미흡하며 낚시줄과 낚시밥, 이분 등의 쓰레기 발생으

로 환경오염과 수산자원이 감소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종묘 방류와 해안정화사업 ▲바다목장사업 ▲해양낚시공원 조성 ▲낚시어선 전용 접안 바지선 확대설치 등을 통해 낚시 관광산업 본격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의신면 모도해역 100ha에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 새로운 가족형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인공어초와 투석으로 어족지원의 서식지인 해중립(海中林)을 조성하고 감성돔과 조피볼락 등 수산종묘를 매년 방류해 다양한 수산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의신면 접도어촌계에 3억원 을 투입해 부산교와 돌하우스 등을 각각 3기 설치하고 갯벌체험 등 어촌체험 마을과 연계된 숙박이 가능한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터 이용이 가장 많은 관내 어항(漁港)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낚시전용 프라자'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실내 낚시터를 비롯해 낚시용품 판매장, 식당, 숙박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낚시관광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촌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관광과 접목한 가족단위 체험형 낚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명품 농산물 10% 싸게 드려요"**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목포 농산물유통센터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목포유통센터에서 관내 연합사업단에서 출하되는 호박고구마 등 30여개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5~10% 싸게 판매하는 특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 다도해 공원 '녹색숲 복원사업' 1차 완료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길)가 도서지역의 훼손지 복원과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도서 녹색숲 복원사업' 1차 사업이 완료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훼손된 도서지역의 복원을 위해 ▲도서지역의 방목가축 구제(驅除) ▲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년 2차 사업도 지속적인 방목가축 구제와 더불어 도서 녹색숲 복원 사업 시행 대상지(도서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정길 서부사무소장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훼손지 복원이라는 취지를 살려 지역주민과 함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조완기자 wncho@

관저해 시설물 철거 ▲훼손지 상복화 업수 식재 등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부사무소는 31개 도서에 방목된 가축 685마리를 잡아들이고 경관자

해 시설물 8개소를 철거했다. 또 헛

리를 제거 16ha, 상복화업수 식재 5만4

천500그루(27.25ha)를 완료했으며,

지역주민 대상 연인원 1만2천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내년 2차 사업도 지속적인 방목가

축 구제와 더불어 도서 녹색숲 복원

사업 시행 대상지(도서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정길 서부사무소장은 "지역주민

의 일자리 창출과 훼손지 복원이라는

취지를 살려 지역주민과 함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

전을 위한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

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61-270-8319)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어릴 적 추억의 글씨와 글리기와 옛날 궁중에서 즐겼던 투호·던지기, 육놀이·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목포자연사박물관 내에

있는 생활도자박물관에서는 도자기

흙으로 물레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

이 도예체험'을 비롯해 관객 대상

'희망나무 꾸미기' 이벤트가 열린다.

문의(061-270-8319)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어릴 적 추억의 글씨와 글리기와 옛날 궁중에서 즐겼던 투호·던지기, 육놀이·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목포자연사박물관 내에

있는 생활도자박물관에서는 도자기

흙으로 물레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

이 도예체험'을 비롯해 관객 대상

'희망나무 꾸미기' 이벤트가 열린다.

문의(061-270-8319)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어릴 적 추억의 글씨와 글리기와 옛날 궁중에서 즐겼던 투호·던지기, 육놀이·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목포자연사박물관 내에

있는 생활도자박물관에서는 도자기

흙으로 물레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

이 도예체험'을 비롯해 관객 대상

'희망나무 꾸미기' 이벤트가 열린다.

문의(061-270-8319)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어릴 적 추억의 글씨와 글리기와 옛날 궁중에서 즐겼던 투호·던지기, 육놀이·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목포자연사박물관 내에

있는 생활도자박물관에서는 도자기

흙으로 물레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

이 도예체험'을 비롯해 관객 대상

'희망나무 꾸미기' 이벤트가 열린다.

문의(061-270-8319)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어릴 적 추억의 글씨와 글리기와 옛날 궁중에서 즐겼던 투호·던지기, 육놀이·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목포자연사박물관 내에

있는 생활도자박물관에서는 도자기

흙으로 물레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

이 도예체험'을 비롯해 관객 대상

'희망나무 꾸미기' 이벤트가 열린다.

문의(061-270-8319)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어릴 적 추억의 글씨와 글리기와 옛날 궁중에서 즐겼던 투호·던지기, 육놀이·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목포자연사박물관 내에

있는 생활도자박물관에서는 도자기

흙으로 물레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

이 도예체험'을 비롯해 관객 대상

'희망나무 꾸미기' 이벤트가 열린다.

문의(061-270-8319)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어릴 적 추억의 글씨와 글리기와 옛날 궁중에서 즐겼던 투호·던지기, 육놀이·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목포자연사박물관 내에

있는 생활도자박물관에서는 도자기

흙으로 물레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

이 도예체험'을 비롯해 관객 대상

'희망나무 꾸미기' 이벤트가 열린다.

문의(061-270-8319)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어릴 적 추억의 글씨와 글리기와 옛날 궁중에서 즐겼던 투호·던지기, 육놀이·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목포자연사박물관 내에

있는 생활도자박물관에서는 도자기

흙으로 물레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

이 도예체험'을 비롯해 관객 대상

'희망나무 꾸미기' 이벤트가 열린다.

문의(061-270-8319)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어릴 적 추억의 글씨와 글리기와 옛날 궁중에서 즐겼던 투호·던지기, 육놀이·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목포자연사박물관 내에

있는 생활도자박물관에서는 도자기

흙으로 물레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

이 도예체험'을 비롯해 관객 대상

'희망나무 꾸미기' 이벤트가 열린다.

문의(061-270-8319)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어릴 적 추억의 글씨와 글리기와 옛날 궁중에서 즐겼던 투호·던지기, 육놀이·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목포자연사박물관 내에

있는 생활도자박물관에서는 도자기

흙으로 물레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

이 도예체험'을 비롯해 관객 대상